

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1

1

1. (가)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사욕을 극복해서 예(禮)로 돌아가는 것이 인(仁)이다. 하루라도 사욕을 극복하여 예로 돌아간다면 천하가 인으로 돌아갈 것이다.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자는 학문으로 ㉠을/를 사귀고, 그 사귀기를 통해 인의 실현을 도모한다. ○ 다른 사람과 사귀는 때는 서로가 간곡하게 선(善)을 권면(勸勉)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가져야 선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에게는 간곡하게 선을 권면해야 한다.

- ① 자애(慈愛)를 실천해야 하는 혈연적 관계이다.
- ② 혼인(婚姻)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이다.
- ③ 신의(信義)를 바탕으로 하는 호혜적 관계이다.
- ④ 계약(契約)을 근거로 복종해야 하는 관계이다.
- ⑤ 향렬(行列)에 따라서 역할이 고정된 관계이다.

2. 다음은 신문 칼럼이다. ㉠에 들어갈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문 ○○○○년○월 ○일

㉠

오늘날 연로한 부모와 왕래하지 않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는 것만으로 효를 다하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물질적 봉양만으로 진정한 의미의 효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 (중략)... 일찍이 맹자는 부모를 섬기는 방법으로 양구체(養口體)와 양지(養志)를 강조하였다. 전자는 부모의 육체를 받들어 섬기는 것을 의미하며, 후자는 부모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우리는 효를 행함에 있어, 양구체와 더불어 양지가 의미하는 바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 ① 효는 물질적 차원에서만 한정해야 한다
- ② 사회적 명성을 얻기 위해 효를 행해야 한다
- ③ 효는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
- ④ 효는 물질적 봉양과 정신적 공경이 병행되어야 한다
- ⑤ 물질적 봉양은 이해타산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3. 다음 사상의 입장에서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배려 관계는 배려를 하는 사람과 배려를 받는 사람 간의 만남이다. 일례로, 낯선 사람이 나에게 길을 묻는다면 비록 아주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만남은 배려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나는 그 낯선 사람의 요구에 마음을 쓰게 되고, 길을 찾아 주기 위한 행동을 실천한다. 배려 관계는 이러한 나의 배려 노력을 상대방이 수용하고 인정할 때 완성된다.

- ① 다른 사람이 처한 어려움에 공감하여 행동해야 하는가?
- ② 상황의 구체적 맥락보다 보편적 원리를 강조해야 하는가?
- ③ 여성 중심의 윤리는 정의 윤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가?
- ④ 윤리적 결정을 내릴 때는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가?
- ⑤ 배려 관계는 피배려자가 배려 행동을 받아들일 때 완성되는가?

4. 서양 사상가 갑이 <사례> 속 A의 행위를 도덕적 행위라고 평가할 때 제시할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의무에서 나온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그 행위에 의해 실현되어야 하는 의도가 아니라, 우리가 행위하려고 결단할 때 따르는 준칙(準則)에 놓여 있다.

<사 례>

고등학교생인 A는 학교 체육관에서 우연히 스마트폰을 주웠다. A는 주운 물건을 주인에게 마땅히 찾아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따라 스마트폰의 주인을 찾아 돌려주었다.

- 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 ② 자연적 욕구를 추구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 ③ 사회적 이익을 계산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 ④ 최대 행복의 원리에 따른 행위이기 때문이다.
- ⑤ 보편적 도덕 법칙을 준수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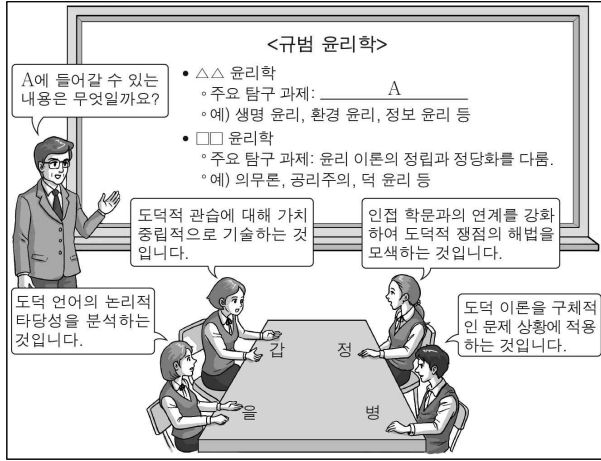
5.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인간의 발달 과정은 선명한 경계가 없는 연속적인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인격이 언제 생기기 시작하는지 확정할 수 없지만, 모든 인간은 배아에서 생명이 시작된다. 따라서 배아는 인간과 동일한 존재로서 생명권을 가진다.

을: 인간의 발달 과정은 연속적이지만 이를 근거로 배아가 인간과 동일한 존재라고 할 수는 없다. 모든 참나무는 도토리에서 시작되지만, 도토리와 참나무가 같지는 않다. 배아는 인간이 될 잠재성만을 지닐 뿐이다.

- ① 갑은 인격의 발생 시점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
- ② 을은 배아를 인간으로 발달할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인간이 연속된 과정을 거쳐 형성된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배아가 온전한 인간의 지위를 가진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배아를 인간의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6. 그림의 수업 장면에서 교사의 질문에 옳은 대답을 한 학생을 고른 것은?



-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7.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지닌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일지라도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서 이타적 행위를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모든 집단은 개인과 비교해서 충동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억제할 수 있는 이성과 자기극복 능력이 훨씬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 ① 개인의 도덕성은 사회 정의의 실현과는 무관하다.
- ② 개인은 집단에 비해 도덕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 ③ 개인의 이타심은 집단 속에서 강화되어 나타난다.
- ④ 집단 간의 관계는 정치적이기보다 항상 윤리적이다.
- ⑤ 집단의 이기심을 억제할 사회적 강제력이 필요하다.

8. 그림은 어느 학생의 필기 내용이다. ㉠~㉥ 중 옳지 않은 것은?

주제: 시민 불복종의 이해

◎ 학습 목표

- 롤스의 시민 불복종의 의미와 정당화 조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 시민 불복종의 의미

-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긴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부정의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는 행위이다.

2. 시민 불복종의 근거

- 다수에 의해 공유된 정의관에 의거해야 한다. ㉠

3.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

- 공공적이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 행위 결과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
- 합법적 방법이 소용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 한다. ㉣
- 행위 목적의 달성을 위해 폭력의 사용이 용인되어야 한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9. (가)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퍼즐 속 세로 낱말 (A)를 수행하는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청렴은 수령의 본분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다. 청렴한 사람은 청렴함을 편하게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청렴함을 이롭게 여긴다.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나)	<table border="1">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A)</td><td></td><td></td><td></td></tr> <tr><td>(B)</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p>[가로 열쇠] (A):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나 사회 또는 온 인류를 위한 선(善). 공동선이라고도 함. (B): 고도의 전문 교육과 훈련을 거쳐야만 종사할 수 있는 직업</p> <p>[세로 열쇠] (A): 개념</p>											(A)				(B)													
			(A)																										
(B)																													

- ①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익을 도모해야 한다.
- ② 도덕적 의무를 다하여 타인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 ③ 절제의 덕을 함양하여 청렴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
- ④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공적 임무를 다해야 한다.
- ⑤ 업무 처리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0.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시장 경제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는 한에서 기업 이익 극대화를 위해 자원을 활용하고 이를 위한 활동에 전념하는 것이다.

을: 시장 경제에서 기업은 합법적인 이윤 추구 이외에 사회의 목표와 가치에 부응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즉 기업은 환경 개선, 빈곤 감소, 고용 창출 등과 같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 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윤 극대화로 한정해야 하는가?
- ② 기업은 이윤 추구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가?
- ③ 기업은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가?
- ④ 기업의 이윤 추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 ⑤ 기업의 이윤 추구는 자선적 책임을 수행해야만 정당화되는가?

16.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예술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술이 예술 이외의 영역에 속하는 가치와는 관계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예술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예술의 진정한 가치는 개인이 선(善)에 도달하고 사회가 진보하도록 이끄는 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보기 >

- ㄱ. 예술은 공동체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 ㄴ. 예술의 가치는 오직 예술 그 자체에서 찾아야 한다.
- ㄷ. 예술은 개인의 올바른 인격 함양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 ㄹ. 예술의 도덕적 가치보다 미적 가치를 더 중시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나와 같은 견해를 가진 서양 사상가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은 평등하게 고려되어야 할 이익을 갖고 있으며, 그 이익이란 즐거움을 누리고 고통을 받지 않을 이익이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다른 서양 사상가는 ‘동물에 대하여 인간은 어떠한 직접적인 의무도 갖지 않는다. 동물은 자기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존재한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후자의 주장이 ㉠이라고 생각한다.

- ①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임을 간과하고 있다.
- ② 생태계 전체의 이익을 우선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③ 동물에 대한 중 차별적 태도를 버려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④ 모든 생명체가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⑤ 동물에 대한 존중은 인간의 간접적 의무임을 간과하고 있다.

18. 다음 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과학자는 연구 과정에서 성급한 결론을 내리거나 원하는 결과만을 선호해서는 안 되며, 엄정한 규칙에 따라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실험하는 것만으로 과학자의 사명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다. 과학자는 진리 발견을 넘어 자신의 연구가 미래 세대와 바깥 세상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 보기 >

- ㄱ. 과학자는 연구 결과에 대해 윤리적 성찰을 해야 한다.
- ㄴ. 과학자의 주관적인 가치가 연구 과정에 개입되어야 한다.
- ㄷ. 과학자는 과학 기술이 후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 ㄹ. 과학자는 과학 기술 활용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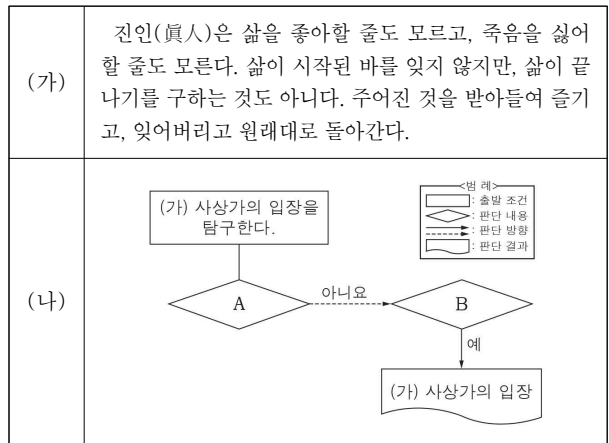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사이버 공간에서는 누구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가능하며,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을: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 번 공개된 개인 정보는 정보 주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게 되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잊힐 권리의 보장이 필요합니다.
 갑: 아닙니다. 잊힐 권리를 보장하여 개인의 자기 정보 통제권을 강화하면 대중이 필요로 하는 정보까지도 삭제되어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타인의 부당한 감시나 침해, 남용으로부터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때문에 대중의 알 권리 침해와는 무관합니다.

- ① 잊힐 권리의 보장은 대중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가?
- ② 현실 공간에서도 잊힐 권리는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가?
- ③ 잊힐 권리의 보장으로 지적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가?
- ④ 사이버 공간에서의 개인 정보 유출 문제는 개인의 책임인가?
- ⑤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제약은 익명성을 약화시키는가?

20. (가) 사상가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 B에 들어갈 옳은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보기 >

- ㄱ. A: 삶과 죽음은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순환의 과정인가?
- ㄴ. A: 죽음을 회피해야만 정신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는가?
- ㄷ. B: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 인의(仁義)를 행해야 하는가?
- ㄹ. B: 죽음은 삶과 차별이 없으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